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신지서 강해

## 선한 목자를 위한 통곡

스가랴 12:1-14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위기 상황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역사의 흐름을 인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역사의 모든 순간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의 정복보다 마카비 운동 때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이기게 할 것입니다.

12장 1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스가랴에서 9장에 이어 두 번째 경고의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는 이방 나라인 하드락 땅에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이스라엘을 헐박하고 점령한 이방나라가 마침내 망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막대기로, 도구로 잠시 이스라엘을 이겼지만 너희는 곧 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두 번째 경고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열국들과 다름으로 인해 결국은 더러운 것 다 떼어버리고 연단을 거쳐 여호와와 순수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환란을 당하면 연단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자녀가 됩니다. 끊는 용광로에 쇠붙이를 넣으면 다 녹아내립니다. 금도 정금만 남고 불순물은 다 녹아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환란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정금과 같이 순결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날'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 그 날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오순절 사건,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4)"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니(10)"

그들이 찌르고 바라보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회한 것은 언제 있었는고 하니 오순절 때에 있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개할 때를 말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울고, 12절에서 온 땅 각 족속이 애통하고, 14절에서 남은 족속이 애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예수를 믿는 날, 그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 날이 어떻게 올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에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예수님을 바라보고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퍼시고 땅의 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1)"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을 지으셨음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즉 심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퍼시고, 세우시며, 지으신' 등은 과거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즉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보존, 인도하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

라...(2)"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온 그들이 술을 먹고 망하듯이 예루살렘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침내 복음이 이길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3)"

이 세상은 창세 이후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 눈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이 스가랴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므깃도 골짜기 하다드르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11)"

이 므깃도 골짜기의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열국들이 이스라엘에 맹공을 퍼붓기 위해 연합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강한 지도자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갈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볕 갈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사를 것이요...(6)"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결국 열국을 이기는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4절과 9절에 하나님이 이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은 점점 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취하게 하는 잔, 3절에서는 상하게 할 것이다. 9절에 와서는 멸한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위기 상황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역사의 흐름을 인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의 정복보다 마카비 운동 때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이기게 할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니...(10)"

그가 찢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유대인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은총으로 주실 때, 성령으로 나를 감화시킬 때 이 모든 사건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울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개인과 국가가 죄를 슬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 날이 오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통곡의 눈물을 우리 모두가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는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의 설교와 신학진단

-내일 25일(월)오후 4시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한국교회사학연구원(원장 민경배)과 한국기독교사학회가 주최하는 한국교회 10대 설교가 연구 공개발표회 아홉 번째 순서가 내일 25일(월)오후 4시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다.

특별히 올해의 연구 대상은 우리교회 이중윤 목사로 이중윤 목사의 신학과 설교를 객관적으로 분석, 진단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할 이는 신약학자 서중석 박사(연세대 대학원장), 설교학자 김세광 박사(서울장신대교수), 교회사학자 이상규 박사(고신대 교수)이며 논찬자로 예배학자 문성모 박사(대전신대 총장)가 나서게 된다.

내일 공개발표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한국교회 장단에 대한 평가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자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지 진단된 것을 지켜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당일 행사에 오시는 이들에게는 저녁식사와 주차권이 제공된다.

안내 및 행사 준비위원들은 25일(월) 1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여 준비하게 된다.



## 2004 성경암송대회

10월 29일(금) 오후 7시 30분 본선

산상수훈(마:5~7)을 범위로 하는 2004 성경암송대회가 오늘 시작된다. 각 교회학교에서는 부서별로 예선을 갖고 교회학교에서 입상을 하는 이들은 오는 10월 29일(금)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은 29일 오후 7:30 602호에서 있다. 심사는 정확도 70%, 태도 20%, 반응 10%로 한다.

## 이라크 자이툰 부대 구호물품 전달하다

우리교회는 지난 금요일 그동안 우리교회 성도들이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구호물품을 모아 자이툰 부대에 전달하였다.

# 2004 사명자 대회 연속기도표

“성령의 사람, 예수의 증인”

(10월 22일 현재)

일시	요일	0~1	1~2	2~3	3~4	4~5	5~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24	주일	주일예배																							
25	월	민순구 이영철 김미향 김정애 정인주	민순구 이영철 김미향 석춘희	임훈규 임승자 하옥봉 황정임	임훈규 서경학 김광룡	하영수 공일성 이영아 손영호 유숙인	홍순복 박정선 현기옥	이인순 이윤희 김정애 방계윤 홍승자	정연택 송순옥 전인화 최두순 배은희 장애희 이부자 송옥혜	김민숙 윤정식 신현희	전용순 김병금 고경순 인명덕	전용순 나기태	김지영 방승희	이은희 김영희	김정희 이승래 정낙희	김수옥 김경희	남옥진 윤용근	심상필 신선주 최영열 김찬진	유승상 윤숙희	김정란	김정란 이신정 김지은 이경연 이영애 김용숙	이지혁 한수찬 김수호 서경애 나옥녀	최영순 정유선 김규태 박미혜 나옥녀		
		윤찬오 이영철 김미향 이종만 이은자	윤찬오 이영철 김미향 이경구 이재봉	이광형 이경구 이재봉	이광형 이경구 이재봉	이광형 이남성 유숙인 안성현 이경구 이재봉	김영주 이매순	노인숙 박선자 김순구 전하진 박분옥 김은미 이윤희 이윤종	이부자 송옥혜	황정신 이영옥 윤숙희	고경순 이영옥 윤숙희	정정희 최영결	최용결 정연택	오영자	김용래	공진문	김경순 신선주 공진문	서문석 한춘홍 최영열 김찬진	홍승주 여연진	곽숙 김영희 김종윤 조성연 정동학	박분옥 김은미 윤종희 이은희 전하진	김영주 조철기 김규태 박미혜 나옥녀 서경애 3-14	김규태 박미혜 나옥녀 박명희		
27	수	김광신 이영철 김미향 김규태 박미혜 김계순	김광신 이영철 김미향 김규태 박미혜 김계순	신용식 최지순 박예숙	신용식 김금준 이현주 김숙자 김계순	신용식 유숙인 이남성 김계순	박훈자 한은경	박훈자 이남복	박훈자 이부자 송옥혜	박정순 최덕희	송옥혜 고완순 방승희 김연주	정애신 고완순 심재을 신정순	김인순 고완순 이부자	신현이 유우자 고완순	고완순	전미미 왕영희 윤봉준 김명하	한명순 윤봉준 김명화	수요 2부	김규태 박미혜 이복규 한명순	조동완 김복승 이은희	조동완 최인애 서경애 나옥녀	조동완 김복승 나옥녀			
		오정수 이영철 김미향 손성실	오정수 이영철 김미향 손성실	조정식 이미숙 정영애	조정식 이미숙 정영애	조정식 이미숙 유숙인 이남성	이금순 나금주 박상희 최금봉	이금순 나금주 박상희 최금봉	이금순 이부자 송옥혜	이혜선 전배호 김미혜 고경순	이혜선 최난수 고경순 종보 기도팀	김미혜 종보 기도팀	김은순 김희정	김인순 송의숙 임영숙 이영희 조옥섬 이민화 조정옥	김정숙 김양숙	신정순 박이선	이영희 김경희	신선주 양인수 최영열 김찬진	이경희 송혜숙 안인호	정희순 전용순	김신영 13교구	이화주 이은옥 정미연 차영도 조경희 나옥녀 서경애	이화주 이은옥 정미연 차영도 조경희 나옥녀 서경애		
29	금	전기섭 이영철 김미향 유기찬 윤용미 이중창	전기섭 이영철 김미향 최죽희 한광마	노문환 한광마	노문환 이계봉	노문환 이남성 김명심 유숙인 차도훈	김진희 문주희	박두영 전영자 배병이	임승자 이부자 하옥봉 황정임 송옥혜	김석범 이은희 고경순	이인선 김혜자 김명자	이이선 김혜자 김명자	홍창배 권익순	홍창배 권익순	채경희 최근자	이정자 김중근 이영희 신선주	이순배 최혜순 김중근 최영열 김찬진	심희숙 이학명	서춘식 황예자 박우주	금요기도					
		정병무 이영철 김미향 안미경 서경애	정병무 이영철 김미향 최양진 강윤숙 서경애	이갑진 김달순 이우진 서경애	이갑진 정인주 김정애 서경애	이갑진 이남성 양미숙 유숙인 석춘희 서경애	이인숙 양춘경 양미숙 석춘희	박광식 박현영	박영자 이부자 임옥균 송옥혜	유승상 서명근	고경순 장영일	장영일 정정숙	유승상	유승상	이상호	이태원 심재을	신선주 7교구	대혁부 7교구	하정 8교구	서춘식 8교구	1교구	서경애 나옥녀	김규태 박미혜 나옥녀		
31	주일	주일예배																							



장로가정 탐방 - 박두호 장로 가정편

# 여호와께서 불드심이로다

박두호 장로님 가정은 어머니 김중리 권사님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의 기도로 장로님을 다시 든든히 세워준 한성옥 권사, (할렐루야 찬양대와 다락방장), 아들 준홍(29) 네 식구이며 딸 소현은 출가하여 미국에 살고 있다.



젊은 시절 혼자 되시어 어린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어머니는 지금도 반백이 된 아들을 위해서 늘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장로님은 어머니를 한마디로 '감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존경과 감사가 배어나오는 진솔한 말이었다. 오른팔, 왼팔을 다하여도 부족하여 내 전부와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한 아내 한성옥 권사님도 늘 기도와 사랑으로 장로님을 돕는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이라고 하신다.

지난 2000년 운영하던 회사의 공장이 큰 화재를 당하여 어려움에 처했을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다는 장로님. 가족의 기도가 없었던들 그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기 어려웠을 것이고, 장로님 가정이 당한 고통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 주었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다. 이처럼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지금도 장로님께 큰 힘이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힘이 되었던 것은 말씀을 붙든 일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불드심이로다"(시 37:23-23).

서울교회의 마크는 말씀이라고 강조하시는 장로님은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이 테이프와 전파를 통해 많이 보급되

고 있는 중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이웃들이 서울교회로 모이는 요즘이 무척 감사하시다고, 70인 전도대를 수료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감사하고, 고아와 과부, 갇힌 자들을 돌보고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중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자랑스럽다고 하셨다.

이종윤 목사님께서 삭발을 하시면서까지 서울교회를 세우신 목회 비전에 크게 감명을 받은 후로,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했던 서울교회의 첫 출발을 늘 기억하면서 주일예배를 드리면 수요일예배를 기다리고 수요일예배를 드리고 나면 금요일예배가 기다려지던 예배와 찬양의 감격이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늘 발견되기를 바란다. 장로님은 당부하셨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사랑, 물질에 눈 먼 세대가 되자 말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받은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짐이 되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세대를 늘 경계하여야 할 것이라고 장로님은 말씀하신다.

가브리엘 찬양대와 7교구 교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박두호 장로님은 내년 안식년을 가질 예정이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뵈을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85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안식년을 보내리라고 하시는 장로님은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년에도 교회를 섬기리라 하신다. 나소정(편집부)

2004 사명자대회 기간 중 신앙강좌반 기도교사들에게 보내는 '시표'로 쓴 편지

# 님의 기쁨

김재진 목사(서울교회 협동목사)

깜깜한 밤  
어둠은 깊어가고  
주위는 적막하기 그지없는 순간.

별안간 전화 벨 소리가 울리면  
그는 하루 종일 지친 몸을 일으켜  
열린 수화기를 든다.

하루 온종일 집에 있어도  
'노크(Knock)'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한 사람,  
순간 그는 살아있음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방문한  
그 어떤 분을 의식하게 되리라.

우리는 그 분을 누구라 부를까?  
우리도 누군가의 방문을 받았지 않았던가?  
우리를 그렇게 그 분이 불러주시지 않았던가?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저 사람들,  
그들은,  
지금도 자신을 찾아준 그 음성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내가 천사의 음성이 될 수 있다면,  
저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대신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그토록 찾고, 찾았던  
나 자신의 행복이라.



사명자대회의 기도

# 이 땅의 간구함을 보소서

임상연 장로(12교구)



120년 전 복음이 허락된 이 땅에 식민통치와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어 오늘에 이르게 하셨지만 아직도 이 나라가 완전한 복음국가로 되지 못하고 사명자로 부름 받은 저희들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여 이 나라에 분단의 현실이 계속되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 회복되지 못한 경제침체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우매한 길을 고집하고 있고 남북으로, 동서로 갈라진 이 나라가 극도의 편 가르기로 이제 남북로, 노소로, 또 도시와 농촌으로 갈기갈기 찢겨서 가까운 사람끼리 만나도 대화조차 마음 편히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공홀이 풍성한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성도, 회개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부름 받은 서울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어 이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이 나라에 회복의 때, 부흥의 때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세워진 위정자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시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이 통합되고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타개할 길을 찾게 하시고 백성 된 우리 역사 자신을 향하여는 절제로, 이웃을 향하여는 희생으로 이 총체적 난국을 이길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북한 땅을 벗어나려는 많은 동포들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위정자들의 굳은 마음을 녹여 주시고 멸할 자는 멸하여 주시어 그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고쳐지는 날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과 테러의 반복상황이 계속되는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땅의 잘못된 종교이념이 더 이상 참 진리를 거부하지 못하게 깨우쳐 주시며 테러주의자들의 손과 발을 묶어 주시어 무고한 인명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으며 새로이 파병된 우리 자이툰 부대 젊은이들이 목적을 아름답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안전과 평강을 계속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자로 부르시고 지금도 강한 팔과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때마다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멘-

천국입문 양성 - 고3결연기도회를 마치고..

# 미래는 구하는 자의 것

김정호 집사(고등부 교사, 12교구)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서1:7)

오즈음처럼 엄청난 변화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교육 제도는 우리 마음을 더욱 더 긴장시킨다. 새로운 미래의 도전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아들딸들!

고등부실에서 고3 수험생들과 선생님, 학부모,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후배들과 함께 모여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확실한 것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사는 수험생들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뜨거운 기도회였다. 심신이 지쳐 있는 수험생들, 지금까지 내 힘만 의지하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도전 받으며 회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고3 기도 결연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새로운 힘을 충전 받으며 버릴 것은 버리고 얻을 것은 얻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교훈의 시간이기도 했다.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은 끊임 없는 기도와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인 기도를 계속해주시기로 약속하시며 강하고 담대 하라며,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시는 사랑과 축복의 시간이었다.

앞으로 나라와 교회를 이끌고 나갈 주역들이 아닌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신다고 하셨다.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미래는 구하는 자의 것이다.  
100%구하라. 그리고 100%노력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우리 딸 아들이 되기를 기도 드린다.

### 등정

- 이종운목사는 28일(목) 북음동지회, 총회 주기도문 · 사도신경 재번역 위원회, 에큐메니칼 위원회, 29일(금) 한기총 주기도문 · 사도신경 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 이영조 집사(할렐루야찬양대 지휘자)는 칸타타 '예언자의 노래'를 24일 세라믹 팔레스트홀에서 발표한다.
- 개원 : 4교구 이영주 집사, 최양혜권사 글맥학원 Tel: 2608-0100
- 주간식당 봉사 : 에스더 여전도회(10월24) 한나 여전도회(10월31)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4 사명자대회 8대기도제목 성취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2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성경대학, 열린프로그램을 위하여
4.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화요정오음악회

# 파이프 오르간과 그의 친구들

좀처럼 식지 않을 것 같던 대지의 열기,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여름도 계절의 순환 속으로 사라지고 어느새 가을의 한복판이다.

청명한 하늘과 서늘한 바람, 지금은 어느새 한 해의 마감을 준비해야 하는 결실의 계절이다. 쫓기듯 바빴던 나날들, 이제 마음에 여유로움을 가지며 음악의 향연 속으로 빠져보자.

이번 가을 정오음악회는 관악기와 오르간이 어우러지는 실내악이 주를 이루며 오르간 듀오와 교회절기를 마감하는 회개와 소망의 찬송을 부르는 음악예배로 꾸며졌다.

기획자 오자경 집사는 이번 정오음악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악기 연주자들을 선정하여 실내악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화요정오음악회는 그 어떤 음악회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교제와 전도의 장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

지난 화요일 플루트와 오르간의 연주는 다정한 두 친구의 대화를 연상케 했다. 이날에는 우리 귀에 익숙한 그리그의 플루트 소품과 바흐가 연주되었는데 그 소리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위엄한 자태를 자랑하며 마치 독불장군과 같은 모습의 파이프 오르간이지만 아주 조그만 친구 플루트를 만나서는 사랑을 나누듯 조곤 조곤, 서로를 배려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이 마치 다윗과 요나단 같았다.

이번 화요일에는 주일 찬양예배 오르가니스트인 오신옥 집사가 4명의 트럼펫 주자와 함께 연주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날의 연주는 강건한 남성의 소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이프 오르간은 교향악적 색채가 짙은 프랑스 음악 연주를 하며 바로크 트럼펫을 사용하여 연주할 웅장하고 퍼셀의 트럼펫 작품은 고도의 테크닉을 요하는 것으로 연주자를 들으면 일반인들의 트럼펫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오신옥 집사는 말한다.

총 6회에 걸쳐 연주되는 이번 정오음악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솔로로 연주할 때에는 시뒀 다른 느낌으로 오르간이 서로 다른 악기를 만나며 이루는 앙상블은 우리를 또 다른 음악세계로 이끌게 될 것이다.

11월 16일에 있을 마지막 순서는 교회절기를 마감하는 회개와 소망의 찬송의 음악예배로 꾸며진다. 대강절이 시작되기 전 교회력을 마감하는 이때에 지난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가오는 날들에 대한 소망을 찬송으로 부르는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사죄와 은총의 기쁨을 맛보게 할 것이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연주회 못지않은 훌륭한 연주 프로그램에 아직 성도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교회음악에 대한 인식 부족이 아닐까 싶다. 화요정오음악회가 지역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화요일 정오 잠시 일상을 접어두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하면 지친 영혼은 쉼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 또한 한층 깊어지지 않을까!

허숙(편집부)

## 오르간과 함께하는 실내악 연주회 (Chamber Music Concert with Organ)



박상미

- 이화여대 관현악과 졸업
- 독일 Stuttgart 국립음대 졸업(디플롬)
- 독일 Würzburg 국립음대 졸업(최고연주자 과정)
- 이화여대, 평택대 출강
- 서울 클래식 쉐플레이즈 수석



오신옥

- 이화여대 종교음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수석
-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연임
- 평택대 전임교수 대우
- 미국 Gate City Baptist Church 오르가니스트 역임
-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는 교회학교로...

우리교회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는 교회학교로 바꾸기 위하여 영상자료 상영 등에 활용하도록 빔프로젝트를 설치하였다.

현재 빔 프로젝트는 101호, 501호, 601호, 602호, 603호, 701호, 801호 등 7곳에 설치되었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 강남 케이블 TV CH1-주일 저녁 9시5분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국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 <a href="http://www.cts.tv">http://www.cts.tv</a>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